

유아의 자기결정력 관련변인에 대한 구조분석 : 유아의 자아존중감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근주** 서소정***

Structural Analysis of Related Variables of Self-Determination Among
Preschoolers': Mediating Effect of Preschoolers' Self-Esteem

Park, Geun Joo Seo, So Jung

본 연구는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관련된 주요 변인으로 유아의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력 및 놀이성을 포함하였으며, 특히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놀이성과 자기결정력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수행하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만4,5세 유아-어머니 총 337쌍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놀이성은 연구자의 현장관찰을 통해, 유아의 자기결정력, 자아존중감 및 자기조절력은 이들의 담임교사의 설문과 질문을 통해, 그리고 어머니-유아 간 조화적합성은 연구대상 어머니의 설문지를 통해 각각의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유아의 자기결정력은 유아의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력, 놀이성은 직접적으로, 어머니-유아 간 조화적합성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자기결정력과 어머니-유아 간 조화적합성 사이에서 완전 매개역할을, 자기결정력과 자기조절력, 놀이성 사이에서는 부분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 자기결정력,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력, 놀이성, 어머니-유아 간 조화적합성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제 1저자: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아동학박사

*** 교신저자: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E-mail : seosojun@kh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발달학적 관점에서 생애 초기인 유아기는 한 개인의 성장과 발달의 과업을 넘어 미래사회의 주역인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대부분의 인간은 가장 보편적인 심리적 욕구로서 자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노보혜, 박성연, 지연경, 2011; Deci & Ryan, 2000) 타인으로부터의 외압적인 강요보다는 자율성에 따라 활동을 선택하고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는 스스로가 독립적인 삶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며 아울러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감이 부여되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율적 선택에 따른 자기결정력(self-determination)은 생애 전반에 걸쳐 원활한 일상생활과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위한 주요 기본능력이며 유아기 때부터 주어진 상황과 대안들 중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과업이라 볼 수 있다.

자기결정력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기결정력이 높은 학습자는 학업 성취도가 높은 편이므로 학습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삶에 대한 자기 만족도와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경향을 보여 학교생활에 대한 심리적 적응이나 집중도, 긍정적인 감정 등에 효과적(임지현, 2007)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기결정력이 미치는 효과를 다룬 관련 연구에서는 자기결정력의 긍정적 영향에 관하여 일관성 있게 논의하고 있다.

유아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한계를 확인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용이할 뿐 만 아니라 행동의 결과에 대한 정서적 평가에 영향을 받는다(김유미, 2004). 또한 유아기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의미 있는 발달적 변화, 즉 학습(learning)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등이상의 연령에서 다루어지는 개인의 주요 능력들은 초등학교 이전 시기부터 준비되고 연습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기부터 형성 가능한 자기결정력을 주제로 이와 관련된 변인들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술한 연구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의 가소성을 바탕으로 자기결정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되는 변인들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자기결정력과 변인들과의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되는 예측 변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력, 놀이성, 그리고 어머니-유아 간 조화적합성을 포함하였는데, 이러한 변인 모두 ‘자기인식에 따른 자율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공통점에 기초하여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즉, 자기조절력은 자기지각에 따른 주의조절을, 놀이성에서는 놀이를 일으키는 행동에 대한 자발성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들의 관련성을 예측하는 조건이 되었다. 어머니와 유아가 서로 조화로운 합치일 때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어머니-유아 간 조화적합성의 경우, 어머니는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 유아에 대한 만족감으로 자율성을 지지할 것이며 이는 또다시 유아의 자

울성을 촉진하여 유아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순환적 구조일 것이라는 예측을 규명하고자 관련변인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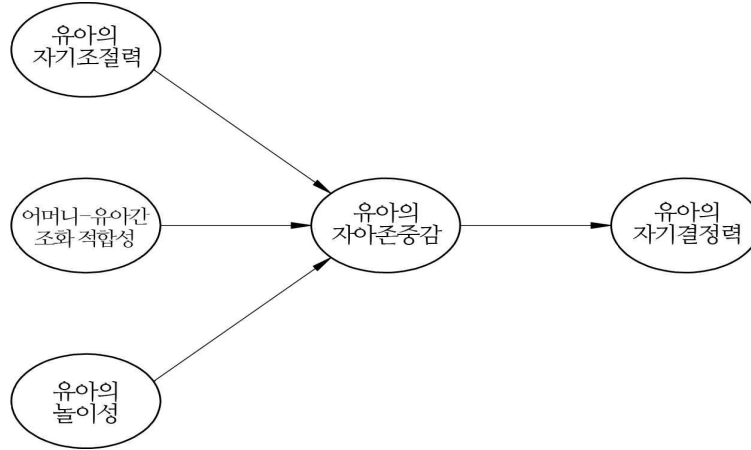
자기결정력 구성요인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잘 세우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며(성은현, 2005), 자기조절력을 통한 내면적 정서조절의 결과로 행동을 통제한다(전희선, 박성연, 2010). 또한 놀이과정에서 유아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은 탐색능력, 문제해결력 등을 습득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유아에게 있어 타인에 대한 긍정적 기대 혹은 지지는 행동에 대한 판단과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많은 연구들(문은식, 김충희, 2003; 안정하, 조옥귀, 2005; 이미화, 2009)에 의해 영향력을 제공하는 요인임을 예측하게 하였다. 그리고 자기결정력의 경우 행동전략과 높은 자아존중감 간의 경향에 대한 연구(류가에, 2009)와 자신에 대한 신뢰와 성취능력의 관련성 연구(민경환, 유경, 2003)에 따라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즉, 자기결정력과 관련변인들 간의 매개변인으로서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포하는 평가요소일 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관찰 및 해석, 사회적 학습 등의 과정을 통해서 획득해 나가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되는 능력이다(최현미, 2011). 또한 사회적 비교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평가가 자아존중감의 근원(김문혜, 강문희, 1999; Diane & Ruble, 1986)이 된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명확히 표현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유아가 독립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지속시키며 완성하려는 능력에 영향을 받으며(문혁준, 신은주, 2011),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심승원, 2006). 그리고 유아의 사회, 정서, 신체적 능력이 높으면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요소들은 자아존중감 전체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최현미, 2011).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고 선택하여 행동하는 자기결정력과 상호호혜적인 관계에 있을 것이며 자기인식에 대한 행동적 표현을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향상시키는 자기결정력을 기르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기에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영향력을 구성하는 연구의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유아가 자기결정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돕고, 유아기는 물론 아동기, 청소년기, 이후 평생에 걸친 삶에 긍정적인 발달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역할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유아가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론적, 실증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유아의 자기결정력 발달을 도모한다면 유아가 보다 능률적이고 기능적인 유기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유아의 자기결정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2. 연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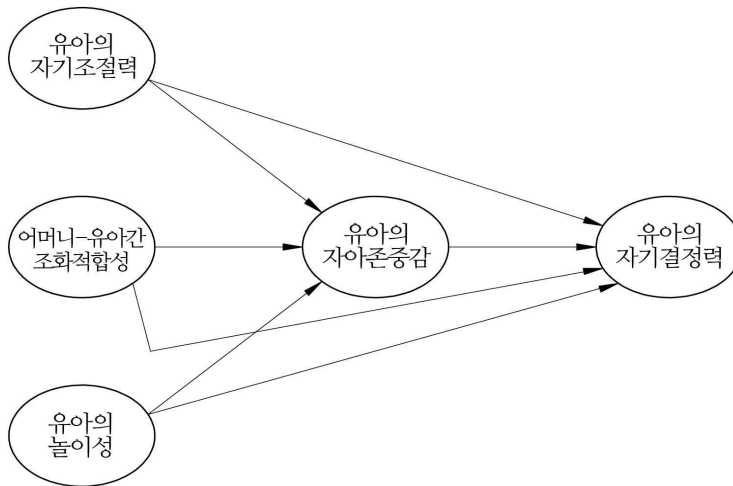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유아의 자기조절력, 놀이성, 어머니-유아 간 조화적합성, 자아존중감 및 자기결정력이라는 연구변인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놀이성, 어머니-유아 간 조화적합성이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있는

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변인들 간의 구조적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가설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1 (완전매개모형)

완전매개모형의 검증과 함께 부분매개모형을 대안모형으로 [그림 1]을 설정하였다. 유아의 자기조절력 및 놀이성이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칠 때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하고, 어머니-유아간 조화적합성의 경우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칠 때 자아존중감이 완전 매개하는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 2 (full model)

본 연구 모형을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유아의 자기결정력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놀이성, 어머니-유아간 조화적합성 간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소재 10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4세, 만5세 유아와 그의 어머니, 총 337쌍이다.

만4-5세의 유아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유아기는 자아의식이 점차 증가하고 사회화됨에 따라 혼자놀이보다는 사회적 놀이를 많이 경험하게 됨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적 기술을 숙련시키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자신을 조절하는 초석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문현정, 2008; Kopp, 1982).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형성되기 때문에(박성연, 2005)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연령을 만 4-5세로 선정하였다. 아울러 만 4-5세 연령의 유아는 자기보고를 위해 언어적 사고가 가능하여 타인과의 상호작용 시 다양한 요구전략의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가 자기평가가 용이할 수 있는 시기라는 선행연구에 기초(배지희, 2006; 서소정, 2006)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의 인구사회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연구대상 유아의 인구사회적 특성 (N=337)

구분		n	%
성별	남자	173	51.3
	여자	164	48.7
연령	만4세	164	48.7
	만5세	173	51.3
출생순위	첫째	191	56.7
	둘째	108	32.0
	셋째	37	11.0
	넷째 또는 그 이상	1	.3
형제자매	외동	43	12.8
	2명	245	72.7
	3명	46	13.6
	4명 이상	3	.9
어린이집 이용시간	종일반	268	79.5
	반일반	65	19.3
	시간제	4	1.2
전체		337	100.0

2. 연구도구

1) 유아의 자기결정력

유아를 대상으로 한 자기결정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개발된 자기결정 검사(Wolman, Campeau, DuBois, Mithaug & Stolarski, 1994)를 사용한 류숙렬(2002)의 도구를

재사용하였다. 본 유아의 자기결정력 검사는 총 30문항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결정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자기 결정력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97로 나타났다.

2) 유아의 놀이성 평정 척도

유아가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참여하는 내면동기를 바탕으로 한 놀이성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개발한 유아용 놀이성 평정척도(김명순, 김길숙, 박찬화, 2012)를 재사용하였다. 총 45문항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놀이성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놀이성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98로 나타났다.

3) 유아의 자아존중감

유아의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해 Harter와 Pike (1984)가 개발하고 고현경(2010)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40문항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자존감이 낮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자아존중감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89로 나타났다.

4) 유아의 자기조절력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Kendall과 Wilcox(1979)가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기통제력 평정표 (SCRS: Self-Control Rating Scale)를 참고하여 황미영(2008)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아의 자기조절력 척도는 총 33문항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충동적임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93로 나타났다.

5) 어머니-유아 간 조화적합성

어머니-유아 간 조화적합성은 Windle과 Lerner(1986)가 제작하고 그 타당도를 검증한 (Talwar, Nitz & Lerner, 1990) ‘개정판 기질차원 검사: 맥락특유이론 (DOTS-R; Ethnotheory : Revised Dimensions of Temperament Survey, Windle & Lerner, 1986)을 사용한 윤진·김정민(1991)의 도구를 재사용하였다. 총 54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계산된 값이 낮을수록 어머니-유아간의 조화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조화로우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유아의 기질은 .931, 어머니의 요구는 .913이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13년 8월 1일~0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유아의 놀이성 평정을 위해 3주 동안 오전 자유선택활동시간을 활용하여 1시간 30분씩 3회에 걸쳐 유아 1명당 평균 30분씩 직접 관찰하였다. 유아의 어머니는 어머니-유아 간 조화적합성 설문에 직접 응답하였으며, 담임 교사는 유아의 자기결정력 및 자기조절력 설문을 통하여 측정하였고, 자아존중감은 그림카드를

통하여 담임교사가 유아에게 직접 질문하고 유아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4. 자료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1.0을,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은 AMOS 21.0을 사용하였다. 이 때 주요 연구변인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유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검증을 위한 부합지수들의 계산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참고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모형에서 설정한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특히, 종속변수인 유아의 자기결정력과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유아 놀이성과는 .394, 유아의 자기조절력과는 .444로 정(+)의 상관을 보였고, 어머니-유아 간 조화적합성과는 -.280로 부(-)의 상관이 나타났다.

<표 2> 유아의 놀이성, 어머니-유아 간 조화적합성, 유아의 자기조절력,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유아의 자기결정력 간의 상관관계 (N=337)

	1	2	3	4
1. 유아의 놀이성	-			
2. 어머니-유아 간 조화적합성	-.232**	-		
3. 유아의 자기조절력	.372**	-.137*	-	
4. 유아의 자아존중감	.328**	-.325**	.263**	
5. 유아의 자기결정력	.394**	-.280**	.444**	.458**

* $p < .05$, ** $p < .01$, *** $p < .001$.

2. 모형검증 결과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 결과 연구모형 2(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지수가 일반적 기준을 대부분 만족시키고 있어 연구변인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첫째, 놀이성과 자아존중감 사이의 경로계수는 .182($p<.01$), $t=3.153$, 놀이성과 자기결정력 사이의 경로계수는 .257($p<.001$), $t=5.769$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놀이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또한 자기결정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조화적합성과 자아존중감 사이의 경로계수는 -.216($p<.01$), $t=-2.830$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유아의 조화 부적합은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조절력과 자아존중감 사이의 경로계수는 .253($p<.05$), $t=1.986$, 자기조절력과 자기결정력 사이의 경로계수는 .504($p<.05$), $t=2.169$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조절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또한 자기결정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자아존중감은 자기결정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자 선행변인인 놀이성, 조화적합성과 자기조절력 변인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판명되었다.

<표 3> 주요변인들의 경로계수 추정치

변인	비표준 화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값	P
유아의 놀이성 → 유아의 자아존중감	.094	.182	.030	3.153	.002
어머니-유아 간 조화적합성 → 유아의 자아존중감	-.987	-.216	.349	-2.830	.005
유아의 자기조절력 → 유아의 자아존중감	.520	.253	.262	1.986	.047
유아의 자아존중감 → 유아의 자기결정력	.469	.218	.099	4.719	.000
유아의 놀이성 → 유아의 자기결정력	.283	.257	.049	5.769	.000
유아의 자기조절력 → 유아의 자기결정력	2.226	.504	1.026	2.169	.030

3. 주요 연구변인들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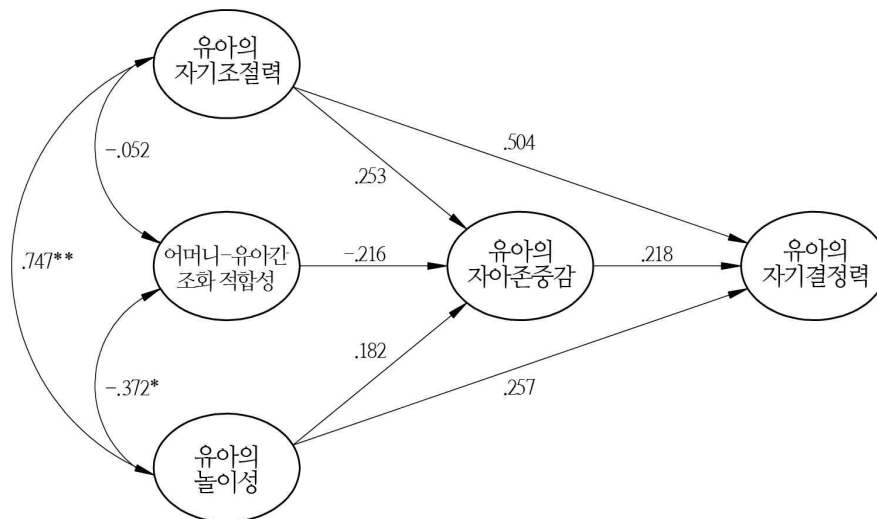
선행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총 효과의 경우 자기조절력이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효과가 .559로 가장 컸으며, 놀이성이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효과 .297, 자기조절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253, 자아존중감이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효과 .218, 놀이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182, 어머니-유아 간 조화적합성이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효과 -.047, 조화적합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216 순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놀이성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040로 나타났다. 즉 놀이성은 자기결정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자기조절력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결정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자아존중감을 통해 .055로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화적합성은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는 완전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유아 간 조화적합성과 자기결정력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하였을 때 부적으로 -.047로 나타났다. 따라서 놀이성, 조화적합성, 자기조절력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자기결정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자녀의 조화적합성이 부적합일수록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 주요 연구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

변인	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유아의 놀이성	→ 유아의 자아존중감	.182		.182
유아의 놀이성	→ 유아의 자기결정력	.257	.040	.297
어머니-유아 간 조화적합성	→ 유아의 자아존중감	-.216		-.216
어머니-유아 간 조화적합성	→ 유아의 자기결정력	-	-.047	-.047
유아의 자기조절력	→ 유아의 자아존중감	.253		.253
유아의 자기조절력	→ 유아의 자기결정력	.504	.055	.559
유아의 자아존중감	→ 유아의 자기결정력	.218		.218



[그림 3] 최종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간의 관계와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자기결정력과 관련된 주요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자기결정력은 유아의 자아존중감, 놀이성 및 자기조절력 그리고 어머니-유아 간의 조화적합성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유아의 자아존중감, 놀이성 그리고 자기조절력은 직접적으로, 어머니-유아 간의 조화적합성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다고 연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선행변인인 유아의 놀이성 및 자기조절력, 그리고 어머니-유아 간의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우선 유아의 자아결정력은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주변 환경의 다양한 요구를 도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아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보고한 국내의 연구(권지혜, 2006; 성선진, 이재신, 2008; 예보은, 2010; Carolyn & Bonnie, 1997)와의 연장선상에서 해석가능하다. 아울러 자기결정력을 구성하는 주요 하위요인인 자율성(SDT: Self-determination theory; Noom, 1999)의 개념적 특성에서도 본 연구결과를 유추하여 논의할 수 있다. 즉 유아가 자연스러운 놀이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놀이의 유형과 방식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등의 문제해결이 요구되는 개인 내적 능력인 놀이성, 개인이나 사회적 요구에 대해 충동적 갈등을 억제하고 인내함으로써 만족감을 지연시킬 수 있는 자기조절능력과 자신을 가치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내적평가능력인 자아존중감은 내재적 동기가 유발된 주도적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김문혜, 강문희, 1999; 문인정, 2007; 이정란, 2003)와의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가능하다.

특히 유아의 자기결정력과 유아의 놀이성에 관한 결과에 주목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놀이 활동이 유아의 내적 동기를 바탕으로 한 자율성에 따른 것으로 활동의 방향성 제시는 물론 활동 자체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 소속감, 성취감이나 만족감 등에 의해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놀이성에 따른 놀이 행동의 직접적인 표현과 놀이성의 내적 동기가 자기결정력과 깊은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유아기부터 자율성에 기초한 자기결정력의 초석이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아울러 유아가 다양한 놀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놀이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반성적 사고를 통해 놀이에 몰입하는 경향이 높으며(문인정, 2007; 이정란, 2003),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선택에 따른 학습자의 주도적 참여와 사회적 규칙과 책임이 요구되는 다양한 놀이상황에서 자기통제, 충동성 억제와 같은 내적인 특성이 반영된 자기조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에 주목해 볼 수 있다(김혜란, 2013; 최병연, 2009). 한편 유아의 자기결정력과 어머니-유아 간의 조화적합성의 간접적 영향이 있다고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자녀의 기질적 특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이에 맞게 부모의 심리적, 행동적 요구수준의 수위를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자기인식능력을 증진시킨다는 기존 연구(박은정, 2010)와도 맥을 같이한다.

둘째,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자기결정력과 놀이성, 자기조절력, 어머니-유아 간 조화적합성 사

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유아의 자기결정력과 어머니-유아 간 조화적합성 사이에서 완전 매개역할을, 자기결정력과 놀이성, 자기조절력 사이에서는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요인들과 자기결정력 간의 관계에 있어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할 것이라는 가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하여 자기결정에 있어 실패에 부딪쳐도 자책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재조정하며 더욱 노력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김명숙, 정대련, 이종희, 2002; 김원경, 우남희, 2002; 배진수, 이영만, 2000; 성은현, 2005; Sternberg, 2003). 뿐만 아니라 자아에 대한 지각이 유아의 행동, 감정, 동기 및 대인관계와 적응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최미숙, 강은영, 최명희, 2009), 자기지각은 유아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자신과 또래의 성공이나 실패를 관찰하고 이를 통해 발달하며, 유아에게 능력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고, 놀이의 과제 난이도 선호는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전적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배혜경 외, 2003), 또한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즉 또래지지와 관련할 때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긍정적인 지지를 제공할 경우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를 갖게 된다는 연구결과(박경자 외, 2009) 등은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유아의 자기결정력과 어머니-유아 간 조화적합성의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부모의 관심이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성수현, 2008)이며, 어머니의 합리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친사회적인 행동, 성취동기, 인기도 및 사회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김기홍, 이주리, 2010; 장유진, 이강이, 2011)가 있으며,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이 조화로울수록 어머니가 아동에게 애정적 태도를 나타내며(정향미, 안민순, 2009), 또한 유아-어머니의 기질요구도 간의 조화적합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지능이 높으며, (김난경, 2001; 한동욱, 2009), 어머니-자녀와 보다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고한 연구(최미경, 2010)결과들과 유사한 맥락에서 논의할 수 있다.

유아는 놀이상황 속에서의 긍정적 자기평가는 또래수용, 자아수용 등 또래들 간에 수용되는 정도에 대한 자기평가보다 더 큰 효과를 보이며(이정화, 최인수, 이수련, 2010), 자기조절과 자기통제를 바탕으로 하는 협동놀이 또는 학습 상황의 경우에도 자기존중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는 연구결과(정희선, 박성연, 2010)를 고려해 볼 때,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유아의 행동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며, 또래와의 사회적 적응기술과 효율적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자율성에 기초한 행동의 선택과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됨을 본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셋째,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즉, 자아존중감, 자기결정력, 어머니-유아 간 조화적합성, 놀이성의 변인들은 모두 유아발달에 있어 그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그 중에서도 자기조절력은 자기결정력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조절력의 중요성은 물론 유아기부터 준비되어야 하는 주요 요소임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자기조절력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은 만족지연능력(delay of gratification)으로 유혹적이지만 금지된 행동,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능력으로 보고 행동을 유보하는 능력, 자기관리 능력들도 모두 포함한다(문인정, 2007). 환경의 요

구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며, 상황적 요구에 따라 행동을 시작하고 멈출 수 있으며, 사회적 교육적 장면에서 활동의 강도, 빈도와 지속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고자 하는 목표나 목적을 위해 행동을 지연시킬 수도 있고 다른 외부적인 제한 없이도 사회적으로 안정된 행동을 생성한다(유주희, 2009; Kopp, 1982). 자기결정력과 관련하여 자기조절력을 통한 전략을 잘 활용하는 경우 성취도의 성장률이 더 우수하다는 결과(양명희, 이경아, 2012)와 자기조절학습은 학습의 질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중요한 특성(양명희, 2000)이기에 자기결정성이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학습요인들에 효과적이다(이미봉, 2004). 그리고 자기조절력은 자기결정성의 연속선상에서 각기 다른 결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동기의 형태이기에 자기조절의 유형에 따라 행동을 내재화하고 통합하는 정도는 달라져 자기조절력이 높은 경우 자기결정성 또한 높은 결과를 나타낸다(임지현, 2007). 뿐만 아니라 자기통제를 통한 자기조절력은 인지적 측면에 대한 긍정적 영향력 뿐 아니라 인성과 사회성발달에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친다(유주희, 2009; Shaffer, 2000)는 점을 상기한다면 유아로 하여금 상황에 따른 행동이나 활동에 대한 동기를 유지하고 통제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결과에서도 입증된 바와 같이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어머니-유아 간 조화적합성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유아의 개별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을 설정하는데 있어 어머니와 유아는 가장 밀착하여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존재로서 이러한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각 대상의 기질적 특성은 양방향으로 미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 결과 어머니-유아 간 조화로우며 역시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어머니와 유아 간의 심리적 조화상태는 유아의 발달에 어느 정도 순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이 조화로우수록 어머니가 아동에게 애정적 태도를 보이며, 이는 유아의 자기지각을 높여주고 보다 발달된 사회적 능력과 발달을 이끌어 낸다(이순복, 김문숙, 2011). 반면 유아의 기질과 환경 간의 ‘부조화(poorness of fit)’가 있을 때에는 유아의 심리적 기능이 손상되거나 문제행동이 발달할 잠재적 가능성이 높아지며(서주현, 2009), 부모의 부적절한 기대, 비하적 판단, 조급함은 자녀의 부정적 자기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외 관련 연구 결과와의 연장선상에서 본 어머니-유아 간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력에 대한 결과를 확대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 다만 부모와 아동 사이의 조화적합성은 고정불변의 성격이 아닌 부모의 기대와 아동의 행동변화로 변화가능한 것이므로(최미경, 2010; Chess & Thomas, 1999)이므로 어머니-유아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유아의 적응적인 모습에 대한 지속적인 격려와 지지로 상호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화된 양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문제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유아의 자기결정력이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력, 놀이성 그리고 어머니-유아 간 조화적합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련 변인들에 대한 탐색과 체계적 분석을 통해 자기결정력은 선천적 능력이거나 발달에 따라 자연이 증가되는 능력이기보다는 유아기 시기부터 일상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습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기결정력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놀이성, 자기조절력, 조화적합성은 공통적으로 ‘자아’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율적인 행동을 통해 자아(self)가 효과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러한 자아지각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경험의 축적 및 사회화 과정을 통해 변화하게 되는데, 특히

인지수준과 부모, 또래 등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가 아동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문현정, 2008). 자기결정력은 유아의 대부분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유아의 자아존중감 증진은 곧 자기결정력의 증진을 의미하므로 자기결정력 향상을 위한 매개요인인 자아존중감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즉 유아는 자발적 놀이 활동의 주체로써 또래와의 놀이활동에 참여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과 특성에 대한 사회적 비교를 통해 자신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종합해볼 때 자기결정력은 동기에 따른 자발성을 통해 수동적 시청자가 아닌 능동적 참여자로서의 행동으로 표현된다. 이에 관련 현장에서는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통제와 조절이라는 사회적 여과과정을 통해 형성된 자아개념이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유아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도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각각 개별적인 특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 독립적이기보다는 서로 연합함으로써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이는 유아-유아, 유아-교사, 유아-어머니 간의 관계는 양방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구성요인들과의 관계는 단순히 유아기에 습득되어야 하는 개별적인 기능만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보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는 발달적 과업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연구초점으로 다루어진 부모-자녀와의 기질적 조화 적합성을 포함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유아의 자율성과 인지적 사회적 능력발달과의 연계선상에서 자기결정력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생애초기 유아의 자기결정력과 자아존중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연구변인들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탐색하고, 이를 기초로 유아기 자기결정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주요한 제한점과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을 보다 포괄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력, 놀이성에 대한 요인의 영향력만을 연구하였으나,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또래와의 관계나 사회적 발달에서 기인된 자아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로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나아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유아의 자기결정력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적 또는 변화하는 가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는 물론 부모의 양육에 대한 다양한 반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자기결정력의 증진 및 향상을 위한 교육적 방향 및 요소들을 살피기 위해 어머니와 유아간의 기질을 중심으로 한 구성요인들의 특성에 따른 관련성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가정에서 주양육자의 실제적인 양육참여와 지지수준, 상호작용방식은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에 주요 연구변인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 자기결정력은 유아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내재적 동기를 행동으로 발현하게 한다는 점과 일상생활 속에서 자아존중감이라는 매개요인을 통해 습득하고 발달하여야 하는 주요 능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아의 자기결정력을 구성하는 변인

들은 서로 유기적이며 상호보완적이므로 유아의 자기결정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고현경 (2010). 만 4, 5세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자아존중감의 경향 및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지혜 (2006).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설명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기흥, 이주리(201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기질 및 조화적합성이 보육시설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6(1), 47-65.
- 김난경 (2001). 유아-어머니의 기질과 조화적합성과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명숙, 정대련, 이종희 (2002). 과학영재와 일반아의 창의적 사고, 인성, 환경과 과학영재의 창의적 수행에서의 성차. **아동학회지**, 24(3), 1-13
- 김명순, 김길숙, 박찬화 (2012). 유아용 놀이성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33(2), 69-89.
- 김문혜, 강문희 (1999). 아동의 자아존중감 관련변인의 인과모형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아영 (2002). 자기결정성이론에 따른 동기유형의 분류. **교육심리연구**, 20, 243-264.
- 김원경, 우남희 (2002). 아동의 창의성에 대한 심리적 관련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3(2), 1-16.
- 김유미 (2004). 뇌 기반 교수-학습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42(1), 83-106.
- 김혜란 (2013). 자기결정성과 자기조절학습 및 수학성취도의 관계.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보혜, 박성연, 지연경 (2011).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학습관여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결정동기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2(4), 83-97.
- 류가에 (2009). 영재아와 일반아의 자기결정성동기와 자기조절학습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류숙렬 (2002). 자기결정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전이기 정도장애 학생의 자기결정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문은식, 김충희 (2003). 부모의 학습지원행동과 초·중학생의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2), 271-288.
- 문인정 (2007). 만5세 유아의 놀이성 및 환산성과 행동적 자기조절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혁준, 신은주 (2011).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과 유아 리더십과의 관계. **생활과학연구논집**, 31(1), 26-53
- 문현정 (2008).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만 3-45세를 대상으로).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민경환, 유경 (2003). 학령전기 아동의 정서 이해의 발달: 정서원인과 정서조절에 대한 이해. **심리학회지**, 12(1), 13-29
- 박경자, 김송이, 권연희, 김지현 (2009).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과 교육**. 경기: 교문사
- 박근주, 서소정 (2013).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아의 놀이성,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력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5), 489-511.
- 박성연 (2005). 부모의 양육행동 및 여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여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인간생활환경연구**(3), 25-36.
- 박은정 (2010). 부모공감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배지희 (2006). 또래관계에서 유아가 사용하는 요구전략과 반응기술: 친구관계와 비친구관계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1(1), 63-84.
- 배진수, 이영만 (2000).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창의력 성격과 창의성과의 관계. **초등교육연구**, 13(2), 5-29.
- 배혜경, 김훈, 안정훈, 배세벽, 김용주, 박선미, 심재영, 박은영, 김충기 (2003). 과학 영재 교육을 위한 통합교과적-다중교수전략적 과학교육 프로그램. **영재교육연구**, 13(1), 21-42.
- 서소정 (2006). 유아의 친사회적행동에 대한 연구: 유아의 요구전략, 언어발달, 어머니의 친사회성에 대한 양육신념 및 사회화전략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1(4), 287-310.
- 성선진, 이재신 (2008). 자아탄력성 및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인관관계 모형구안. 충북대학교 교육개발연구소, **교육연구논집**, 29(3).
- 성수현 (2008).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주현 (2009).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지적능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성은현 (2005). 자아존중감,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인성의 관계. **아동학회지**, 26(1), 217-228.
- 심승원 (2006).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정하, 조옥귀 (2005). 아동이 지각한 주용한 타인의 기대, 아동의 공격성 및 심리적 안녕감과 의 관계. **인문논총**, 15, 55-74.
- 양명희 (2000). 자기조절학습의 모형 탐색과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양명희, 이경아 (2012).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도의 관련성: 변화추이 및 인과적 방향성 검토. **교육과학연구**, 43(2), 175-195.
- 예보은 (2010).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구조분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주희 (2009).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진, 김정민 (1991). 인간발달과 기질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0(1), 43-60.
- 이미봉 (2004). 자기결정동기와 자기조절학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화 (2009). 인터넷 중독 예방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인터넷 게임중독 완화와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순복, 김문숙 (2011). 어머니의 역할지능 및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0(2), 171-186.
- 이정란 (2003). 유아의 자기조절력 구성요인 및 관련변인에 대한 구조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화, 최인수, 이수련 (2010). 유아의 인지수준에 따른 협동학습의 효과: 사회적 능력과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1(2), 17-34.
- 임지현 (2007). 자기결정성 수준에 따른 동기유형과 학업성취, 학업유능감, 자기조절학습 능력과의 관련성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유진, 이강이 (2011). 유아의 기질, 유아-어머니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자기지각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2(3), 59-76.
- 정향미, 안민순 (200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 모-아 기질 부조화와의 관계. **아동간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7(6).
- 정희선, 박성연 (2010). 가정분위기 및 또래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1), 19-33.
- 최미경 (2010). 아동과 어머니의 조화적합성 및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아동학회지**, 31(5), 151-165.
- 최병연 (2009). 초등영재와 일반아동의 자기결정성 동기와 자기조절학습간의 관계 분석. **영재교육**, 8(2), 85-104.
- 최현미 (2011).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외적변인에 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동욱 (2009).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조화적합성과 유아의 정서지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미영 (2008). 어머니의 통제유형과 유아의 자기조절력 간의 조화적합성이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Carolyn, S., & Bonnie, E. C. (1997). Stress, coping,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youth. *The Social Service Review*, 71(2), 231-256.
- Chess, S., & Thomas, A. (1999). *Goodness of fit clinical application from infancy through adult life*. Philadelphia, PA: Brunner/mazed.
- Davis, G. A., & Rimm, S. B. (2004).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Boston: Allyn and Bacon.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227-268.
- Diane, R. N., & Ruble, D. N. (1986). The acquisition of self-knowledge: A self-socialization perspective. In Eisenberg, N. (Ed.), *Contemporary topic in development psychology*, 243-270. New York: Wiley.
- Kopp, C. B. (1982). Antecedent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214.
- Noom, J. N. (1999). *Adolescent autonomy: Characteristics and correlates*. Delft: Eburon.

- Seo, S. (2003). *Maternal self-efficacy, quality of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al outcomes among mothers of young children from Early Head Sta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East Lansing. MI.
- Shaffer, D. (2000).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4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Sternbege, R. J. (2003). The developmental of creativity as a decision making process. In Sawyer, R. K., John-Steiner, V., Moran, S., Stenberg, R. J., Feldman, D. H., Nakamura, J., & Csikszentmihalyi, M.(Eds.). *Creativity and development* (pp.91-13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indle, M., & Lerner, R. M. (1986). The “Goodness of fit“ model of temperament-context relations: Interaction or correlation? In J. V. Lerner & R. S. M. Lerner (Eds.), *Temperament and social intervention in infants and children*. CA: Jossey-bass.
- Wolman, J., Campeau, P. L., Dubois, P. A., Mithaug, D. E., & Stolarski, V. S. (1994). *AIR self-determination scale and user guide*. Palo Alto, CA: American Institutes for Research.

ABSTRAC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variables as related to self-determination in preschoolers. In order to meet the purpose of this study preschoolers' self-determination, their playfulness, self-regulation, and self-esteem as well as goodness of fit between mother and child were taken into account as study variables of interest. Furthermore, the mediating effect of preschoolers' self-esteem in the effects of study variables on their self-esteem was examined. Three hundred thirty seven preschooler(aged 6-7 years old)-mother pairs who attended public subsidized child care facilitie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were sampled. The data were obtained from mother-filled surveys, and on-site observations from both head teachers of the children as well as trained researchers. The obtain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 21.0,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was tested with AMOS 21.0.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in the following. First, it was proven that self-determination of the preschoolers' influenced directly or indirectly on their self-esteem, their playfulness, and self-regulation, as well as goodness of mother-child fit. Also, the result pertaining to the mediational effects of child's self-esteem in the effects of study variables of interest on the child's self-determination were revealed. Along with results of this study, there is a strong need to empower the preschoolers' self-determination through improvement of their self-esteem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s well as in family settings.

▶ *Key Words* : *self-determination of preschoolers', self-esteem, self-control, playfulness, and goodness of fit between mother and child.*

논문투고 2014. 08. 13.
수정원고접수 2014. 11. 30.
최종게재결정 2014. 12. 20.